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해가 지남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고, 이 마지막 주일에도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도 로마서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본문의 말씀들이 시절에 주는 메시지와 무관(無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단어는 <남은 자>라는 용어(用語)입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남아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인데? 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신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유명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I. 엘리야 콤플렉스 (Elijah Complex)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자신만이 유일하게 정의롭거나 진리를 알고 있다고 믿으며, 주변 사람들은 모두 타락했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BC 870~850년경)를 중심으로 활동한 북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는, 7대 왕인 아합(Ahab)이었고,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경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페니키아(시돈)의 왕이자,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녀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정략 결혼하며, 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을 들여오고, 왕과 함께 바알 숭배를 장려한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대결전을 다룬 것이, 열왕기상 17장-18장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대가뭄을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가뭄으로 여러해 나라가 피폐해지자,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에 혈안(血眼)이 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3년후에(18:1)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고 갈멜산결투(決鬪)가 열립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나오게 해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내려 제물을 태우게 하는 대결을, 제안한 것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베풀고 온갖 주문과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다립니다.(비가 아니라 불이 내리는 것을 제안한 것은 엘리야,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왕상 18: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쪽 선지자는 등장하지 않는 듯합니다. 저들은 환란의 기간 중에 도망하였습니다. 오바다 선지자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가 한말을 보면(왕상 18:13), 여호와의 선지자들 100여명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상황은 850:1의 영적전투를 하는 셈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외롭고 절체절명의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든 시도(試圖)가 수포로 돌아간 후,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나아오게 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지파

를 따라 12돌을 세우고, 돌 제단을 쌓고, 주변에 수로(水路)를 두르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끓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리고 기다리던 비가 내립니다.

* 이것은 북왕국에서 위대한 종교개혁(宗教改革)의 불길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무후무(前無後無)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세벨이 진노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기반이 몰락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다. 자기의 제사장들을 850 명이나 죽이다니요. 그는 이 사실을 아합에게서 듣고, 분노(忿怒)가 충천(衝天),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엘리야를 저주합니다. 왕상 19: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라운드를 승리한 엘리야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을 건데.. 이런 다른 위기가 오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묻겠조? 다시, 그릿시넷가로 도망치지 않겠조? 아니요 그는 호렙산으로 도망칩니다.

놀랍게도,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열왕기서가 이 부분이 강조하는 것은, 도망이 하나님이 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에게 죽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소연하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잠을 잡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일어나서 먹게하고(이때도 숯불구이가 있었네요) 다시 자게하고, 여호와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이고 갈 길을 가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 사십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와 산에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熱心)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대답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엘리야 콤플렉스가 등장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어요...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엘리야 콤플렉스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영혼을 때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열상 19:18)

이 말씀은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 사상의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엘리아시대에, 북왕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였을까요?

남북왕조가 앗시리아와 바빌론에 차례로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생각은 무엇이였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셨나하는 생각입니다.

바울 사도는 질문법을 사용해서 로마서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질문들은 대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들, 의문시해오던 것들로 대신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 대답은 “결코 그럴수 없느니라”고 외치며 끝냅니다(me genoito).

1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대화를 1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3:4, 6, 31. 6:2,15. 7:7,13. 9:14, 11:1, 11) 오늘의 본문 11:1절에서 바울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버리셨는가?**” 답은 무엇입니까? “**메 게노이토**”입니다. **그럴수 없다. 하나님은 소수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두 번째 논지입니다.

II.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자를 통해 뭘하고 싶으신 것인가요 무슨 계획이 있나요?

구약 성경에서 인구조사는, 엘리야 시대 직전인, 다윗 왕대에 있었습니다. 당시 인구 조사(사무엘하 24:9)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에는 칼을 빼는 담대한 장정 80만 명이 있었다고 기록 합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은 인구가 그것보다 훨씬 적은 30만 명 내외였다고 보고도 합니다만. 80만명으로하면 1/100도 안되고, 30만으로 잡아도 100명 중 2.3명의 극소수입니다.

자기밖에 없다고 말한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7천명이란 숫자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열상 19:18)

히브리어 본문에서 “남기리니”에 해당하는 단어는, ‘**베히샤르티(בְּחִישָׁרְתִּי)**’이며, 이 단어의 시제적 특징은, **완료형+와우 접속사 (Waw Consecutive)**로서 의미상 미래(Future)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예언적 완료 (Prophetic Perfect)**라고 부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마치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7천 명이 **우연히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남기기로 결정하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남길 것이다” (I will leave / I will cause to remain)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로마서 11장 4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할 때, 헬라어 **과거 시제(에리폰, ἔλιπον)**를 사용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I have kept)”라고 표현했습니다. 분명 엘리야의 시대이후 900년이나 지난이후의 바울의 관점에서선 그것이 과거형이 될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고자합니다.

1. 나만 남았다는 <엘리아 콤플렉스>를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아마 나만 남았다는 엘리아의 말은, 당시에 사실(事實)일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도망가고 백성들은 권력앞에서 눈치를 보며 새로운 신흥종교에 빠지기고 자신만 남아 총대를 지는 큰 승리를 하기는 하였지만, 강력한 왕권과 이세벨앞에서 혼자라는 생각으로 도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바알에게 무릎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7천명이나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 악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TV의 세상의 드라마는 진실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드라마가 대개 HAPPY ENDING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현실과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현실의 실제 드라마와 역사에는, 악이 승리하는 역사, 흑역사(黑歷史)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자신만 고난당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고독감과 절망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숨어서 도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I will leave/reserve seven thousand (NIV), I have left me seven thousand(KJV)이라고 하십니다.

2. 두 번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혹은 진리)이 남겨두신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 "희망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마 이들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혹자는 7,000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며 '1,000'은 많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숫자가 7,000명이라는 뜻을 넘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남겨두신 '완전한 공동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이 7천명이 요한계시록에서는 144,400명이라는 숫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7:4, 14:1은 성경에서 가장 논쟁이 많으면서도 중요한 상징적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엘리아 시대의 '7천 명'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지만, 그 규모와 상징성이 확장된 것입니다. 12(구약의 12지파) × 12(신약의 12사도) × 1,000(충만하고 큰 수) = 144,000

즉,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총합이자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7,000명: 배교의 시대(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신실한 자들.

144,000명: 환난과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인(Seal)침을 받고 보호받는 거룩한 공동체.

두 숫자 모두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호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신흥 종교나 이단에서는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144,000명으로 해석하여,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 이 숫자 안에 들어 구원받는다"는 식의 선민의식을 심어주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는 특정 단체에 국한된 숫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를 아우르는 영적 완전수로 보는 것이 정석(定石)입니다.

3.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엘리야시대를 이야기하다가 오늘로 다시 돌아옵니다.

5-6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말씀이 남은자가 되는 것이 본인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참 기막힌 역전입니다. 보통 남은자 설교를 하면, 대개 사람들은 남은자가 되자고 결심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상외(豫想外)의 말을 한 것입니다.

남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福音)과 노선(路線)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8-10절을 기억해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행위의 불필요성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행위의 한계를 말하는 구절입니다. 행위의 문제점이기도한 행위가 자랑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과 성화에 자랑질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서 선행되고 종결되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남은자가 된 것을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언어유희(言語遊戲)를 합니다.

7.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느끼셨습니까 뭔가 이상한 것을! 무엇입니까 바울이 남은자라는 용법(用法)을 바꿨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개념(概念)의 전환, UP SIDE DOWN을 합니다. 그는 ‘우둔한 남은 자’라는 개념을 만들어, 설파합니다. 이 남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외(外)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8-10절에 걸쳐 바울은 언급합니다.

8.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9.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덧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해하기 쉽지 않는 말씀이지요? 8절을 주어와 동사로만 보세요. 하나님이(주어) 주셨다(동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용구절인 이사야 29:10절을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신명기 29:4절은 말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9-10절은, 다윗의 시편 69:22절 인용인데, 다윗이 그들을 위해, 저주성(咀呪性) 기도(祈禱)까

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이하를 보세요 !!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덧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21-25)

바울은 기묘(奇妙)하게도, 이 말씀을 결론(結論) 짓고 있습니다.

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도

이건 그들을 버리지않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서, ‘그들, 그들, 그들’ 그들이 누구인가요?

로마서 11:11-12에서 언급되는 '그들(저희)'은 일차적으로 불신앙 상태의 유대인(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智慧)를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目的)을 여기서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류구원의 섭리요, 복음의 확장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풍성함과 충만함을 가져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계획(救援計劃)에 완성(完成)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충만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마치는 부분에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33)

오늘 저는

1. 나만 남았다는 엘리야 콤플렉스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2. 또한 이 땅에는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주님 앞에 있도록, 그리고 한 해를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로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로 택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